

# 역사 옮긴 '대장 김창수 · 남한산성' 왜 지지부진 할까



### 진정성 바탕 전달 메시지 명확하지만

### 오락성 결여 · 무겁고 진지...관객들 외면

역사적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들이 좀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대장 김창수(이원태 감독)는 21일 7만7942명을 극장으로 불러 들이는데 그쳐 누적관객수 18만8064명을 기록했다. 박스오피스 순위는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3위에 머물렀다.

이어 남한산성(황동혁 감독)은 사실상 상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2만4399명을 끌어 모았다고 누적관객수는 37만569명이다.

같은 날 개봉한 '범죄도시'(강윤성 감독)가 32만 명을 동원한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다.

'남한산성'은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나이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속 조선의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한 47일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대장 김창수'는 1896년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은 청년 김창수가 인천 감옥소의 조선인들 사이에서 대장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감동 실화다.

'대장 김창수'와 '남한산성'의 공통점은 역사로 기록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적 재구성을 시도했다는

것. 진정성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만 오락성이 떨어지고 관람 전부터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신뜻 관객들의 손을 향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좋은 영화라는 평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도 딱히 없다. 봤을 때 후회가 남는 작품은 아니지만 굳이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찾기도 못하는 것 같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기대를 모았던 '남한산성'의 흥행 실책은 이번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애초 감독과 배우들은 흥행보다 작품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한 만큼 어느정도 성적은 예견했을 수 있다"며 "이후 사극 영화와 정통사극 장르에 변화가 생기기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 '마스터키' 성종X바비 예능감 폭발...시청자 눈도장 콕



'마스터키' 그룹 인피니트 성종과 아이콘 바비가 물오른 예능감을 뽐내며 눈길을 끌었다. 21일 오후 6시 10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마스터키'에서는 이수근, 김종민, 전현무, 슈퍼주니어 은혁, FT아일랜드 이홍기, 2PM 찬

성, 인피니트 성종, 아이콘 바비, 구단 김세정, 디아라 정채연, 헨리, 몬스타 엑스 서누 12명의 출연진이 마스터키를 찾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출연진들이 모두 모인 오프닝 자리에서 전현무가 성종에게 "얼굴이 하얗다"고 말하자 성종은 "활동이 끊겨서 하얗다"고 말해 시작부터 웃음을 안겼다. 12명의 출연진들은 오프닝 장소에서 각자 12개의 열쇠를 찾았고, 이 가운데 마스터키를 가진 2명을 찾았다는 미션이 주어졌다. 먼저 전현무가 관중대에 열쇠를 올려놓은 후 "이 열쇠가 마스터키입니까?"라고 묻고, 자신만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 후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어 의문을 자아냈다. 결과를 서로에게 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 성종도 마스터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묘한 표정을 짓자 출연진들이 발연기라고 말하며 입을 모았다. 그러자 성종은 "나도 연기를 했었다"고 말하며 '레몬 사랑'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랑이지"라고 말하며 태연하게 연기를 펼쳐 폭소케했다. 이어 "제가 역대 발연기 톱 10 안에 든다"고 말하며 연이어 웃음을 자아냈다. 바비는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예능감을 과시했다. 출연진들은 이수근 팀과 전현무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에 승리한 팀은 마스터키 관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키 가이드'를 획득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게임으로는 팀원들이 협동해 그림을 그린 뒤 또 다른 팀원이 그림을 맞추는 것이었다. 100초 안에 3문제를 맞춰야 했다. 이수근 팀은 이홍기가 문제를 맞춰야 했지만 계속 실패하며 생크림 발칙을 당하자, 바비가 문제를 맞추는 것으로 교체됐다. 바비는 이홍기를 대신하겠다고 자신해 나갔고,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바비는 뛰어난 눈썰미로 첫 번째 그림을 거뜬하게 맞췄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역시 쉽게 맞추며 팀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튜브를 먼저 통과한 사람이 15개의 물 양동이 중

꽃가루 양동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꽃가루 양동이를 가장 먼저 빨리 발견하는 팀이 승리하는 것. 먼저 바비와 세정이 대결했고 바비가 가볍히 튜브를 통과한 후 기쁨의 댄스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게 양동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비는 주어진 양동이 15개 중 한개를 선택했지만 물 양동이를 선택해 물세례를 맞게 됐다. 하지만 또 갑작스럽게 춤을 추며 좌중을 폭소케 했다. 몸을 좌우로 재치 있게 움직이며 웃음을 만들어냈다. 또한 이수근이 바비에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개성 있게 생긴 얼굴이다"라며 돌직구를 던졌지만 "그렇죠"라고 답하며 바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마스터키'가 방송되는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처음부터 끝까지 미션과 추리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에서 보여준 성종과 바비의 활약은 단비 같았다. 다소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웃음을 버무리며 즐거움을 선사했기 때문. 미션에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재치 있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

## '파티피플' 종영 MC 박진영도 통했다



시즌 종영에도 다시 돌아올 '파티피플'이 기대된다. 21일 방송을 끝으로 SBS 음악 토크쇼 '박진영의 파티피플'이 첫 시즌 12부작을 모두 마무리했다. 마마무와 B1A4가 마지막 게스트로 출격해 MC 박진영과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박진영은 두 후배 그룹에게 진정성 있는 조언을 전했고, 마마무와 B1A4는 울먹이면서 음악으로 가능한 교감을 선보였다. 'K팝스타' 전 시즌 심사위원이자 대형 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은 이번 '파티피플'을 통해 또 하나의 수식어를 얻었다. 바로 데뷔 25년 만에 도전한 MC 자리. 그것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박진영은 첫 MC 도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프로페셔널한 진행과 질문을 준비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이효리, 열정야, 에이핑크, 어반지키라, 블랙핑크, 정용화, 장미여관, 이하이, 위너, 걸투, 박혜

미, 유연석, 오만석, 윤종신, 허림, 썬니, 헨리, 선미, 김완선, 바다, 백지영, 거미, 엑소 등 특급 게스트의 출연이 가능했다. 아들 중 해이즈는 최근 박진영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곡 '후회'를 발표하는 등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JYP 가수 들도 많이 등장했다. god의 메인보컬 김태우, 'K팝스타' 제2에서 한술만 후배가 된 백아연, JYP 대표 아티스트이자 올해 제계약을 맺은 수지, 박진영의 애정 어린 시선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뽐냈다. 편한 분위기도 인상적이었다. 이는 심야 시간에 편성과도 잘 어울린다. 고정 코너 '벵고송'을 제외하면 음악과 토크로 방송이 채워진 것. '벵고송' 역시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 했다. 이처럼 음악을 통해 특급 가수들의 새로운 면모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잠시 쉬어가게 됐지만 시즌제라는 점에서 아쉬움보다 기대감이 더 크다. '파티피플' 안에서 펼쳐지는 박진영의 진행 실력과 가수들의 노래가 충분히 멋졌기 때문이다. 한편 '파티피플' 후속으로 오는 28일부터 토요일 밤(일요일 오전) 12시 15분에는 가수 이상민과 배우 장희진 진행하는 새 예능 '살짝 미쳐도 좋아'가 방송된다.

## '韓 흥행 → 日 성공 → 다시 韓'...트와이스 성공 릴레이



트와이스는 좋겠다.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뜨겁게 성공기록을 쓰는 중이다. 22일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매한 일본 첫 싱글 'One More Time'이 4일째 오리콘 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첫날 9만 4957장, 둘째 날 4만 3412장, 셋째 날 2만 364장, 넷째 날 1만 8278장의 판매고를 찍었다. 총 판매량은 17만 7011장. 소속사 관계자는 "일본 진출 한

국 걸그룹 중 트와이스는 최다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역대급 인기 기록으로 향후 트와이스가 기록할 성적은 새 역사로 남을 것이다"고 전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6월 28일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 '#TWICE'으로도 사흘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데뷔 앨범만으로 27만장의 판매고를 보이며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으로 올랐다. 트와이스는 2015년 10월 데뷔 후 연달아 히트곡을 내놓으며 승

승장구했다. 위기 없이 트와이스는 대세그룹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게다가 오는 30일 발매되는 국내 첫 정규 앨범 '트와이스그램(Twiceagram)' 타이틀곡 '라이키(Like)'는 트와이스의 히트넘버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치어업(CHEER UP)', '티티(TTT)'를 만든 블랙아이드핑크가 맡았다. 소속사 측은 "트와이스는 라이키로 8연속 흥행과 한일 양국의 정상 정복을 정조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와이스가 릴레이 성공으로 2017년을 뜨겁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음력 9월 4일)



▶**복** 36년생 행운있는 날이다 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재** 37년생 행운이 온다.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행**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재** 39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51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3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5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7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복** 40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52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64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6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8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재** 41년생 계약은 금물이다. 53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5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7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9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행** 42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재** 43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5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7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9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91년생 꿈을 잡지마라.



▶**행**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행** 33년생 행운 맛을 준비를 하라.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69년생 손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81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재** 34년생 건강에 주의하라.46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58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0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2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재** 35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47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59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1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3년생 꿈을 잡지마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